

2024 파리 패럴림픽 대비

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태권도협회와 협약 체결
국기 태권도 진흥·보급, 선수 육성 등 협력키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오태웅)와 장애인 태권도 발전 등 국기 태권도 활성화와 파리 패럴림픽을 대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오태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장애인 태권도 선수 및 장애인 생활 체육 육성을 위한 협력',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주관·주최 대회 및 연수 등 태권도원에서 개최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올해 4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심판 자격 연수 등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했고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복과 미트 등 훈련용품과 태권도원에서의 연수 시 전자호구 등을 지원했다.

오태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은 "태권



도원은 전지훈련과 연수 등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국가대표 및 선수 지도자 등이 더욱 성과 있는 훈련과 연수 등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도쿄 패럴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남녀 각 3개 체급 경기가 진행되었던 것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남녀 각 5개 체급으로 확대하고 참가 선수 규모도 72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남자 5개 체급(-58Kg, -63Kg, -70Kg, -80Kg, +80Kg)과 여자 5개 체급(-47Kg, -52Kg, -57Kg, -65Kg, +65Kg)의 경기가 열린다.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스포셜올림픽코리아에 이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특히, 도쿄 패럴림픽에서 주정훈 선수가 획득한 동메달을 뛰어넘는 성과를 파리 패럴림픽에서 거둘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내년 국가대표 발탁

대회 본선 기록 순 따라
김예지·황성은 등 선발
내달 1일 진천선수촌 입촌
대회 대비 강화훈련 참여



임실군청 사격팀 김예지·황성은 선수가 2022년 사격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사격 국가대표는 2021년에 개최된 4개 전국 메이저대회(대구시장애인, 창원시장애인, 연맹회장기, 봉황기)의 본선 합산기록 순에 따라 선발되었다.

김예지 선수는 10m 권총에서, 황성은 선수는 25m 권총에서 나란히 5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김예지 선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을 시즌 마지막 전국대회인 제5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권총부 10m 권총 개인 은메달과 단체전 동메달, 25m 권총 단체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황성은 선수(2020년 국가대표 경력) 또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2021 국가대표 선발전 기록 상위 30위 이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제4회 봉황기장애인 사격대회에 참가하여 10m 권총 여자시니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두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이 군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었다"며 "훈련 중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좋은 결실을 맺어 임실군의 자긍심을 고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황성은 선수가 김예지 선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국제 및 국내대회에 대비한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 테니스 남자선수단
도민체전 우승상금 기부

진안군 테니스 남자선수단(회장 장교진)은 25일 군수실에서 테니스 우승 상금 100만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기탁했다.

이번 상금은 지난달 16, 17일 순창에서 열린 제58회 전북도민체전 테니스 남자부 부문에 출전한 진안군 테니스 선수단이 출전 이래 첫 우승을 차지하며 받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장교진 회장은 "모든 선수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연습에 임하였고 대회 당일 갈고땀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오랜 숙원이었던 우승을 거머쥐게 되어 정말 너무 기쁘다"며 "첫 우승을 하면 상금은 지역을 위해 기부하자고 선수들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보여준 테니스 선수단의 열기로 올 겨울 한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열정과 투지로 마련한 이 장학금으로 지역내 양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남자부 테니스 참가선수는 장교진, 조동규, 김기중, 김응일, 이경재, 방기훈, 이종하, 김모세다. /진안=우태만 기자

“좋은 경험·추억 되길”

이승엽 드림야구캠프
내달 4~5일 대구서 개최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 2년 만에 '이승엽 드림야구캠프'를 개최한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드림야구캠프가 오는 12월 4~5일, 대구상상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드림야구캠프에는 리틀야구와 초등학교 엘리트 야구선수 총 250명이 참가한다.

코치진으로는 '국민타자' 이승엽 이사장과 배영수 두산 베이스 코치, 장원삼(은평)을 비롯해 박세웅(롯데 자이언츠), 김강민(SSG 랜더스), 이지영(키움 히어로즈), 오재일·김상수·김현곤(이상 삼성 라이온즈), 하주석(한화 이글스) 등 KBO리그 각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한다. /뉴시스

이승엽 이사장은 "프로야구선수가 꿈인 어린선수들에게 프로선수들이 활약하는 그라운드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될 것"이라며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켓을 실내 연습장 트레이닝룸등을 구경하며 좋은 프로야구선수가 되어있었다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야구캠프를 프로야구 구장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야구캠프의 목적과 취지를 밝혔다.

그를 노리는 이들은 축하공연을 진행하고, 드림야구캠프에 함께 참여해 유소년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모든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은 사전 PCR 음성결과표를 제출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수시 발열체크 및 경기장 방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저연봉 선수들에게 3억여원의 야구 용품을 지원했다.

선수협, 저연봉 선수들에 야구용품 전달

국내 프로야구 선수 지원 일환
상무 포함 퓨처스리그 11개 구단
연봉 5000만원 이하 선수들 대상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저연봉 선수들에게 3억여원의 야구 용품을 지원했다.

선수협은 "11월 한 달 여에 걸쳐 퓨처스리그 구단을 대상으로 순회미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순회미팅에서 선수협은 상무 포함 11개 구단의 연봉 5000만원 이하 625명의 선수들에게 총 3억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전달했다.

저연봉 선수 대상 야구용품 지원은 선수협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내 프로야구선수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선수협에서 후원 등을

통해 유치된 예산과 선배 프로야구 선수들의 현금 및 재능 기부 등으로 3억여원을 마련했다.

또한 선수협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과 이번부터 시행되는 퓨처스리그 FA제고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지난 7월 각 구단 퓨처스리그 경기장을 방문해 해당 선수들에게 용품 품목과 개인별 상세 요청내역을 신청 받았다"며 "선수들에게 꼭 올해 안까지 용품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기간 내 무사히 배포까지 완료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퓨처스리그 순회미팅은 선수협이 각 구장을 방문, 선수협 주요 사업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고충 및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네 꿈, 전북교육의 꿈

“Dream becomes reality. 꿈은 현실이 된다.”

플라타너스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에 젖어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늘 하늘을 보면서 멋진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꿈은 그것을 꾸는 자의 몫’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